



小王子

어린 왕자

[韩]姜仁顺 译
金英玉 注

北京外国语大学等九所高校韩语系教师联袂推荐、遴选最受
韩国人欢迎的世界名著韩文译本。

多所北京著名高校韩语系大学生通读并划出生词，由权威专
家、教授作注。



赠送120分钟
高清朗读光盘



中国宇航出版社



凿壁者丛书
韩文版必读世界名著

小王子

어린 왕자

[韩]姜仁顺 译
金英玉 注



中国宇航出版社

· 北 京 ·

版权所有 侵权必究

어린 왕자 / 小王子

Copyright © 2009 by Jigyungsa Ltd., Publishers

All rights reserved.

Original Korean edition was published by 2009 by Jigyungsa Ltd., Publishers

Original Korean Copyright in china © 2010 by China Astronautic Publishing House

Original Korean Copyright in china arranged with 2010 by Jigyungsa Ltd., Publishers

through AnyCraft-HUB Corp., Seoul, Korea & Beijing Kareka Consultation Center, Beijing, China.

本书韩文版由著作权人授权中国宇航出版社独家出版发行, 未经出版者书面许可, 不得以任何方式抄袭、复制或节录本书中的任何部分。

本书版权登记号: 图字: 01-2010-7099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小王子: 朝鲜文/ (韩) 姜仁顺编译; 金英玉注释.

—北京: 中国宇航出版社, 2011.1

(凿壁者丛书. 韩文版必读世界名著)

ISBN 978-7-80218-883-9

I. ①小… II. ①姜… ②金… III. ①朝鲜语—语言读物

②童话—法国—现代 IV. ①H559.4; I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253114号

策划编辑 于 慧

封面设计 03工舍

责任编辑 朴春姬

责任校对 于 慧

出 版 中国宇航出版社

社 址 北京市阜成路8号 邮 编 100830
(010)68768548

网 址 www.caphbook.com/www.caphbook.com.cn

经 销 新华书店

发行部 (010)68371900 (010)88530478(传真)

(010)68768541 (010)68767294(传真)

零售店 读者服务部 北京宇航文苑

(010)68371105 (010)62529336

承 印 三河市君旺印装厂

版 次 2011年1月第1版 2011年1月第1次印刷

规 格 787×960 开 本 1/16

印 张 10.75 字 数 110千字

书 号 ISBN 978-7-80218-883-9

定 价 24.80元 (随书附赠MP3光盘)

本书如有印装质量问题, 可与发行部联系调换

“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编委会

主 编 徐永彬（对外经济贸易大学）

执行主编 崔有学（中央民族大学）

编 委（以下按汉语拼音顺序）

蔡柯欣（北京语言文化大学）

崔鹤松（中央民族大学）

崔荣根（北方工业大学）

李丽秋（北京外国语大学）

金海鹰（中国人民大学）

金英玉（北京第二外国语学院）

金振杰（北京第二外国语学院）

南燕（北京大学）

权震红（北京联合大学）

孙鹤云（中国传媒大学）

孙玉霞（北京第二外国语学院）

肖伟山（北京大学）

杨磊（北京第二外国语学院）

郑梅（中国传媒大学）



感谢以下同学为本丛书选注生词

北京外国语大学 赵海川 康建业 上官玉莹 燕飞飞 段依依 张帆

北京语言文化大学 李翔 贾志杭 袁宇 李雪 陆冰儿 郑欣宇 王康

中国传媒大学 王逸



从经典中获取文化力量

写在《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出版之际

徐永彬

改革开放后，中韩文化交流是中国对外文化交流中最活跃的组成部分之一。有关于朝韩语言文化的出版物，坊间所见，以教材居多，学习辅助读物也多以美文编选的方式，出版的品类和方式相对单一。作为活跃在小语种出版前沿的宇航社近年来推出了不少有关韩语文化、阅读、学习类的出版物，为推动韩语出版繁荣，推动韩语文化出版作出了应有的贡献。

“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是宇航社奉献给广大韩语学习者的一道阅读大餐。据宇航社的策划编辑透露，丛书立意于对韩国人从小必读的世界名著进行精选，遵循以下三个原则：一是韩国最好的名家译本或改写本；二是在韩国受欢迎的必读名著，即销售很好，得到大众认同；三是出版机构要在韩国有一定的文化地位。遵循这些原则，编辑们从韩国知耕社挑选出了曾经获得韩国儿童文学振兴会选定推荐的优秀读物。第1辑共计6本。

当在北京的九所高校的朝韩现代文学的教授、博士们都次第被邀请到宇航社之后我们才知道，宇航社在引进版权后已经在几个高校的学生中就这套丛书的出版风格、生词遴选、体例设计等诸多方面进行了数轮调研。而老师们被邀请来对这套丛书挑毛病、提建议、并担纲编委，其中部分编委被邀请参加第1辑的生词注释工作。

在编委的讨论会上，宇航社提出了要变小语种为多语种的出版思路，并且突出强调了在未来职业生涯中，作为以语言为专业的工作者不应仅仅只是掌握翻译的实用技巧，还要从文化与思维的角度形成对语言文化的深入理解，以此提升职业的文化素养。听到这些主张，对于我这样的教育工作者来说是非常振奋的。我个人认为，教育与出版都是有益世道人心的人文化成。朝韩文化与中国文化之间还有着很多的富矿值得挖掘。

就“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的出版而言，我个人觉得，它对我们广大的读者来说，至少具有以下几个方面的积极意义：

首先是所遴选的名著多为我们中国人所熟悉的，这就为读者提供了理解的基础。而品读名家对这些名著的译解，使我们能更多地活学活用韩语。英语、汉语、韩语的思维方式的差异会让我们在学习中获得多文化的视角。



其次，读名著学语言是语言学习的最便捷也是最有效的方式。读本国名著当然不可或缺，但世界名著有着更为开阔的文化背景。一个能用韩文解读或者讲述世界名著的学习者，必然会增加自己的语言功底。

最后，这是一套为初学者量身定做的韩文版的世界名著，在韩国很是畅销，是诸多社团和大学的推荐读物。中国读者初学者居多，请初学者将有理解障碍的生词挑出来，又有在一线的韩语老师作注解，相信能成为广大韩语爱好者非常实用的学习读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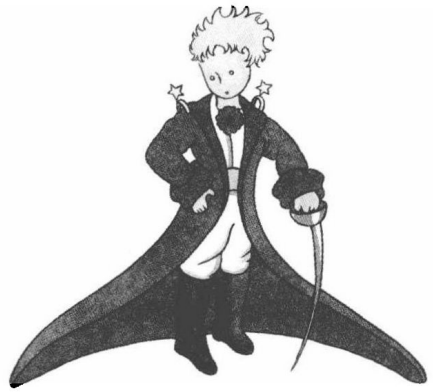
丛书取名为“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取意中国古代读书人凿壁偷光的故事，蕴含着从各国文化中撷取精华，从经典中获取文化力量的含义。我以为，对于我们今天的中韩文化交流，是一个美好的期待。

是为序！

（作者系对外经济贸易大学外语学院副院长、“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主编）



등장 인물



나 (작가)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떨어진 후,
어린 왕자를 만나 여행담을 듣는다.
비행기를 고치고 사막에서 살아 돌아온 후
어린 왕자를 그리워하며 이 책을 쓴다.

어린 왕자

때문지 않은 어린이의 마음을 가졌으며,
자기 별을 떠나 여러 행성을 돌아다닌다.
지구의 사하라 사막에서 주인공을 만나
여행담을 들려 준 후,
자기 별로 돌아가기 위해 죽음을 맞이한다.



뱀

지구에서 만난 동물.
매우 강한 독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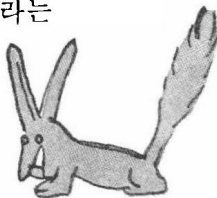
장미꽃 한 송이

어린 왕자의 별에 있는 장미꽃.
어린 왕자가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꽃이다.



여우

지구에서 만난 동물.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 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임금님

첫 번째 별에서 만난 사람.
위엄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우 착하다.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

다섯 번째 별에서 만난 사람.
해가 뜨고 질 때마다
가로등을 켜고 끄는 일을 한다.
점점 빨리 지고 뜨는 해 때문에
잠을 자질 못한다.



사업가

네 번째 별에서 만난 사람.
‘난 바쁘다.’를 계속 외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 별의 수를 세고
있다.

허영심 많은 사람

두 번째 별에서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인사하기 위해
항상 모자를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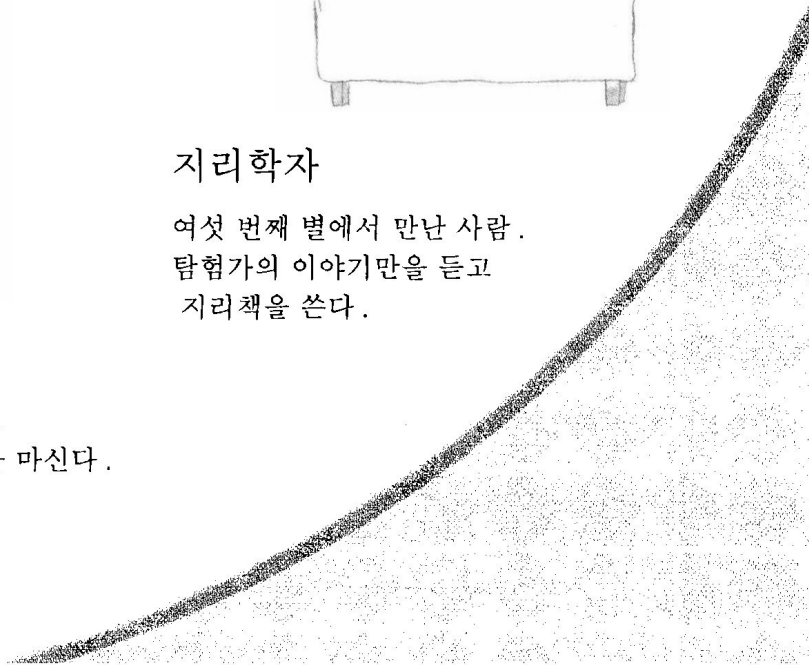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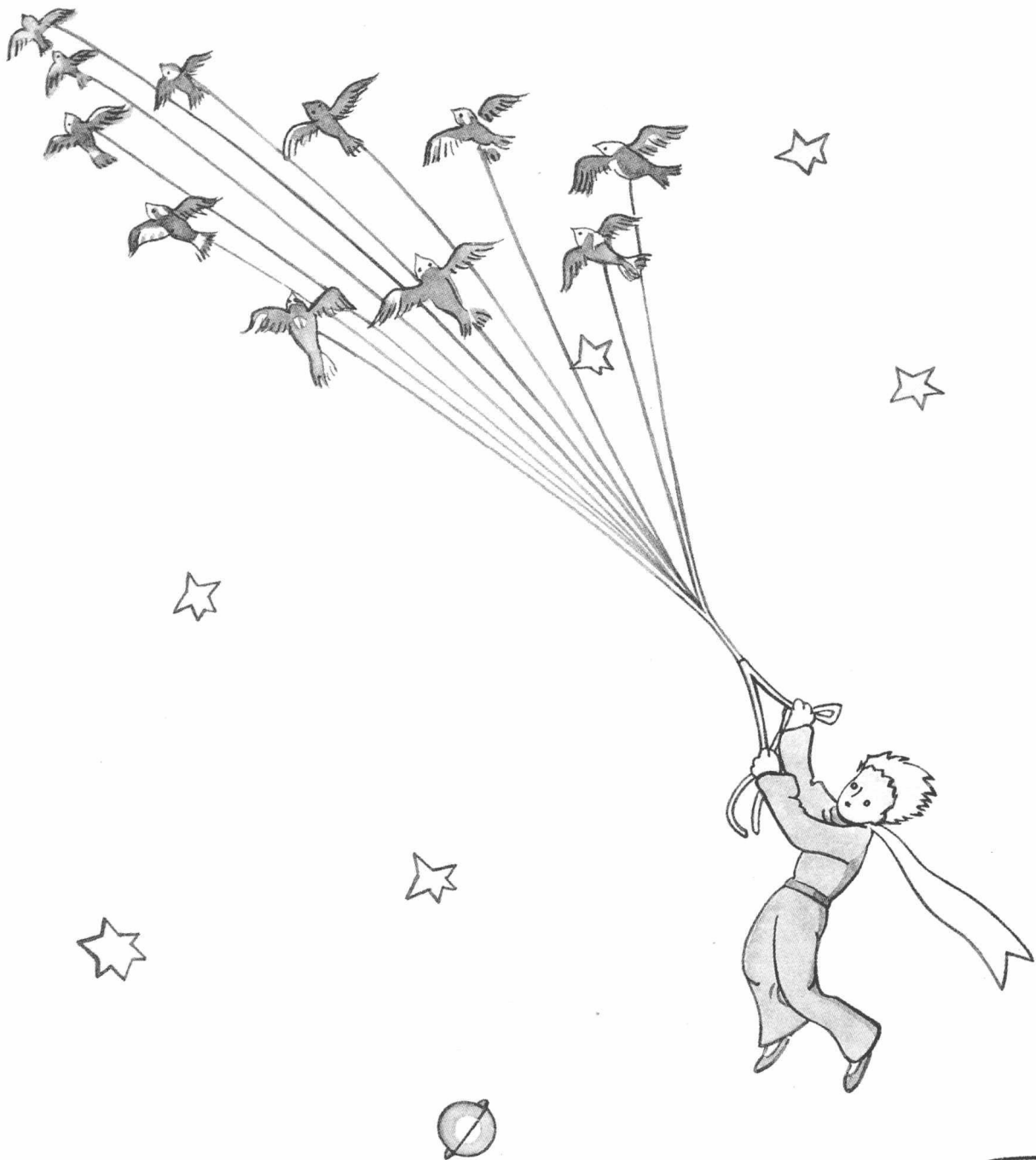
지리학자

여섯 번째 별에서 만난 사람.
탐험가의 이야기만을 듣고
지리책을 쓴다.

술꾼

세 번째 별에서 만난 사람.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





철새들이 이동할 때, 어린 왕자는 철새 떼와 함께
그의 고향 별을 떠나 모험에 나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레옹 베르트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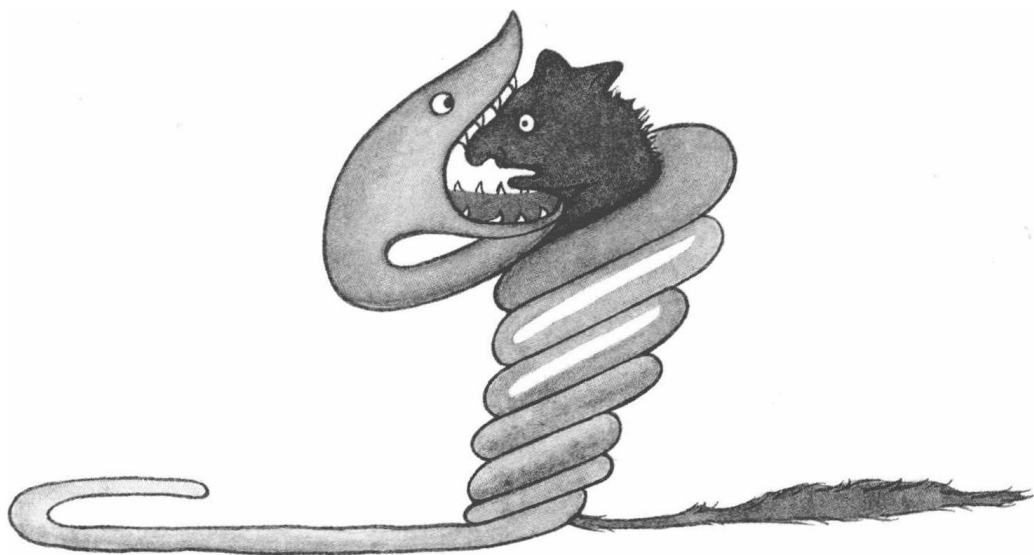
나는 이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쳤는데, 그 점에 대해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른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의 책이든 어른의 책이든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른은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른은 정말 위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도 아직 부족하다면, 그 어른은 옛날에 한 번은 어린이였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린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습니다.

어른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습니다(그러나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어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레옹 베르트에게’ 라고 하는 대신,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라고 고쳐 쓰렵니다.





1

내가 여섯 살 때입니다.

나는 정글에서 일어난 일들을 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마리의 동물을 삼키려 하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그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습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킨다. 그러고 나면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반 년 동안 잠을 자는

정글[名]丛林, 密林

겪다[他动]经历

삼키다[他动]咽下

보아뱀[名]蟒蛇

통째[名]整块, 整个

꿀꺽[副]咕咚一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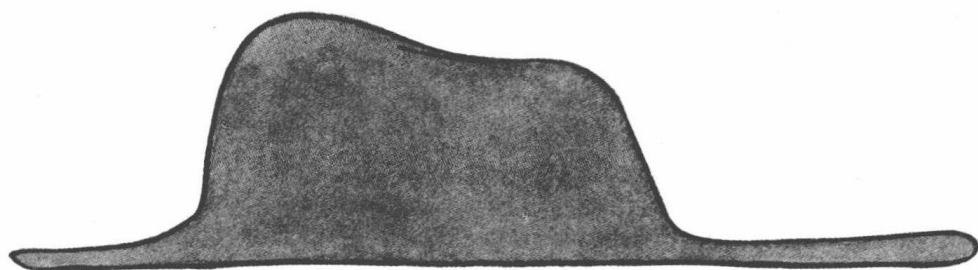




데, 그 동안에 뱃속의 동물이 소화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읽고, 정글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색연필을 가지고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아래 그림이 나의 제 1 호 그림입니다.

나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이며 “이거 무섭죠?”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니?”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닙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 보았습니다. 어른들이란 언제나 이런 식

뱀[名]蛇

따위[名]之类, 什

么的

골치[名]脑袋

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니까요. 나의 제 2 호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은,

“뱀을 그리든 안을 그리든 제발 뱀 따위는 그만 그리고, 지리와 역사와 수학과 국어를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섯 살 때, 화가라는 멋진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후 절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도 두 번째 그림도 이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기가 죽어 버린 것입니다.

어른들은 언제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이런 것, 저것은 저런 것이라고 설명해 줘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겐 골치 아픈 일이지요.

나는 할 수 없이 다른 직업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래서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날아다녔습니다.

지리 공부는 확실히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 주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어디를 날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지리 공부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굉장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른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딘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몸에 늘 지니고 있는 제 1 호 그림을 그 사람에게 보여 줍니다. 정말로 무언가를 아는 사람인지 어떤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이거 모자군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는 보아뱀의 이야기도, 정글의 이야기도, 별의 이야기도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놀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 등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군.”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조종법[名]駕駛方法

날아다니다[自动]

飞来飞去

살펴보다[他动]观察

현명하다[形]明智

지니다[他动]携带

집어치우다[他动]

收起, 打住

골프[名]高尔夫

넥타이[名]领带

2

털어놓다[他动]吐露

사하라사막[名]撒

哈拉沙漠

기관[名]机器, 系统

부러지다[自动]断

수리[名]修理

수천[数]数千

통나무[名]圆木

표류하다[自动]漂流

훨씬[副]更加, 益发

뜨다[自动]升起

무렵[名]时分, 之际

깨다[他动]醒

이처럼 나는 정말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6년 전에 나의 비행기가 사하라 사막에서 고장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비행기의 고장은 기관 하나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기술자도 없고 손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겨우 일 주일 간의 먹을 물이 남아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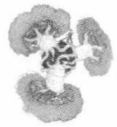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조그마한 통나무 하나에 의지하여 넓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주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해가 뜰 무렵, 나는 이상한 목소리에 잠을 깨습니다. 그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어……, 양 한 마리만 그려 줘.”

“응?”

“양 한 마리만 그려 줘.”

나는 너무나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하게 생긴 작은 사내아이가 나를 뻘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4 페이지의 그림을 봐 주십시오.

그 그림이 내가 그 사내아이를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나의 그림은 그 사내아이의 실물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여섯 살 때 어른들에 의해서 화가가 되려던 나의 꿈을 버린 후로, 그러니까 보아뱀의 안쪽과 바깥쪽의 그림을 그린 후로는, 그림이라고는 전혀 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의 앞에 서 있는 사내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무려 수 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벌떡[副]猛地

비비다[他动]揉

사내아이[名]男孩

뻘히[副]两眼大睁地

쳐다보다[他动]仰望, 凝眸望

탓[名]过错, 缘故

나머지[名]……之余

뜨다[他动]睁开

바라보다[他动]注视

거듭[副]一再, 屡次